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독소조항' 무수히 많아



이번 여중생사망사건을 계기로 '한·미 형
정협정'(SOFA·소파)를 평등하게 개정하라
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와 관련, 99년 설립된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의 공동대표인
우리학교 이장희교수(법학부)를 만나보았다.

이번 애증생사상신 무죄판결에 소파가 결정적으로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나?

한재 소장은 공무중립판인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공무중립자의 발판주체를 미군으로 뜻하고 있다. 또한 미군재판에 입회하지 않았을 때 용의자의 증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며, 기소후에 검찰은 용의자에게 행상심과 관련된 심문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초동수사자 신분로 이뤄지자 못했으며, 1심에서 부패와 관련된 증거를 갖고도 수 없게 한 소파규정에 의해 이번 사건은 피해자는 있지만 기해자는 없는 피해의 연극이 되어버렸다.

현재 소파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크게 볼 때 민사상 절차가 너무 복잡한 문제, 환경조항이 너무 선언적인 문제, 미군의 시설 구역안에서의 지나친 배타적경찰권을 인정하는 문제 등이 있다. 현행 소파에 따르면 미군은 미군기지안에 핵무기같은 위험무기를 반입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사전통고를 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얼마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소파는 평

동하여 일한 '독일 동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힌 것은

소재는 크게 본합점과 부속합점으로 나뉘는데, 보충 선언적인 본합점은 우리나라나 일본 본국에 있어도 조항이나 다른 게 별로 없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부속합점에 들어가기에 애가 달린다. 일본·독일에 없는 특수조항들이 소위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다. 예를들면, 본합점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 재판관외자를 서로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규정 조항은 본합점에서는 「대만군」 특별히 중화라고 생겼지만, 일본·대한민국은 재판관외자를 포기한다 라고 일반법으로 미루권을 둘 것이고, 부속합점을 의하면 재판관외자라고 범용한다? 주장은 법부문의 형태는 거기다.

지금까지 소파의 개정역사는 어땠었나
48년 잠정협정, 50년 대전협정을 거쳐 66년에 처음 소파가 제정됐다. 91년 처음으로 개정된 소파는 범죄발생 15일 이내에 미군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형사판결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성급하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맺음으로 그때부터 미군주둔군비부담법은 방위비를 우리가 부담하게 됐

다. 이윤인에 해마다 4억불에 달하는 예산이 미군에게 지급된다. 작년(2001년) 재개정된 소파는 신병인도시점을 과거의 최종판결후에서 기소 이후로 앞당겼지만 4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사실상 개정의 의미가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기소후 검찰이 용의자에게 범행사실과 관련된 시문을 들 수 없게 함으로써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들었다.

최근 정부가 소파를 '개성'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국외의 여론이 상당히 높은 법적 성격을 취하하고 국산인적 성격이 짙은 양재각이 세제 혜택과 마련정도도 그러해서 안된다. 소파 제 조출처는 소파운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경우 '함·미 합동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되어 있다. 조속히 '함·미 합동위원회'를 소집하라. 단순한 개성이 아닌 근본적이고 전방적인 소파 '개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불평했던 소파로 4년동안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겪었지 않았다.

양창모 기자
h@hanmail.net

“죽이고도 무죄라니, 여중생들이 들쭉인가”

반미가요 '탱크라도 구속해' 작곡한 '우리나라' 단원 백재길씨



* '우리나라'는 지난 3일(화)부터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18일(수)까지 종로일대에서 '미선이 효순이의 한을 풀어주'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란 주제로 거리공연을 연다.

양창모 기자
m@hanmail.net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의 '탱크로도 구속해'라는 반미가요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기소된 주한미군 2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그들에게 전하는 울분을 담은 이 노래를 작곡한 우리학교 동문 백자(본명 백재길, 경영학과 90학번)씨를 만나보았다.

이 출국하고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시위진압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그런 과정들을 담은 PD수첩 '그들만의 재판, 미군은 무죄인가' 편을 보고 '이런 치욕을 당하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PD수첩에서 성공회대 김용환교수가 "장갑차러도 구속해라"고 밀렸는데 오죽하면 그렇게하고 생각했다. 그런 분노는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생하다'는 리라도 있어서 초등학교생들도 많이 방문하는 것 같다.

우리가 3일(화)부터 종료 '짚음의 거리'에서 거리공연을 하고 있는데 한번은 40대 남성분이 자신이 공연 중 식발을 하고 싶다고 연락해오기도 했다.

거러공연주제가 '미선이 호순이의 한을 풀어줄 대
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인데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대선에서 '미국문제'
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발 이
제는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을 뽑았으
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당하고도 아무 말 못
한다면 가사에 나와있는대로 '우리는 들쭉인
가. 고요이기가'

11월 30일 사이트(<http://uni-nara.com>)를 통해 노래를 발표한 후 지금까지 조회수가 15,000건에 달하고 있

보통 우리 사이트에서 많은 조회수가 1,000건 정도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노래를 듣고 있다. '미선이 언니 너무 복

“헝크라도 구속해”를 작곡하게 된 과정은
(미군 2명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솟았다. 변호사·배심원·판사 모두 미군인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물건이나 너무 험악하다. 얼마 후 그들

Unique & Best
www.hufs.ac.kr

변화하는 외대!
Multiplayer 인재!

변화하는 대하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외국어 교육과 국제지역학 연구의 메카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선도해 왔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제 세계를 이끄는 Multinational 양상을 위해 힘찬 변화를 시도합니다.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힘찬 재도약!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2003학년도 정시모집

1. 모집단위 및 인원
- 나 군 - 서울캠퍼스 : 전체 모집단위
 - 농어촌특별전형 : 서울 - 용인캠퍼스 전체 모집단위
 - 다 군 - 서울캠퍼스 일부학과 : 영어학부, 중국어과, 일본어과, 법학과, 정치행정계열, 생명계열
 - 용인캠퍼스 전체 모집단위
- *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이중편입 학생은 정시 모집인원(서울 '나' 군, 용인 '다' 군)에 포함하여 선발됨

- 신입생 전원 수용가능한 외국어학성 전용 기숙사 신축
- 국내 최초의 영어대학 신설
- 중앙아시아어과, 발칸/슬라브어과, 동아시아어과 신설
- 중국어과와 일본어과를 통합한 동북아시아학부 신설
- 어문계, 비어문계 동시전공 가능한 '+α' 교육
-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신설

- | 2003학년도 정시모집 | | 3. 전형일정 | | |
|--------------|------|---------|--------------------------------|---|
| 1. 모집대상 및 인원 | 대학원생 | 대학원생 교부 | 2002. 11. 16(월)
~ 12. 12(일) | * 본 대학교(서울, 평안북도) 및 강원대학교 평안북도 |
| | 가 | 지 | 2002. 12. 12(일) |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경남, 제주, 서울 |
| | 가 | 대학원 | 2002. 12. 12(일) | * http://www.apuhy11.com |
| | 가 | 대학원 | 2003. 1. 12(월) | * http://www.apuhy.com |
| | 가 | 대학원 | 2003. 1. 12(월) | * 서울대학교 및 동원대학교 |
| 2. 지원자격 | 대학원생 | 대학원 | 2003. 1. 12(월) | * 서울대학교, 대구, 제주대학교, 한국대학교, 고려대학교 |
| | 가 | 대학원 | 2003. 1. 12(월) | * 서울대학교 및 동원대학교 |
| | 가 | 대학원 | 2003. 1. 12(월) | * 서울대학교 및 동원대학교 |
| 3. 지원방법 | 대학원생 | 대학원 | 2003. 1. 12(월) | * 서울대학교 및 동원대학교 |
| | 가 | 대학원 | 2003. 1. 12(월) | * 서울대학교 및 동원대학교 |
| | 가 | 대학원 | 2003. 1. 12(월) | * 서울대학교 및 동원대학교 |

- 입시상담**
 서울캠퍼스 입학관리과 : 02)961-4471~3
 용인캠퍼스 교무과 : 031)330-4399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실인미군처벌, 한총련이적규정철폐와 이회창 낙선'을 위한 명동성당 한총련 시국농성단을 만나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않기 위해... 反昌”



농성하는 대학생들이 '이회창반대' 노래를 부르고 있다

명동의 발파리는 성탄을 맞이할 준비에 바빴다. 여기저기 걸려있는 장식들과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캐롤, 사람들은 미소를 머금으며 거리를 지나갔다. 그러나 조금만 더 걸으면 명동성당에 시야에 잡히고, 그곳에는 파업 20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천막과 더불어 여러 농성자들이 친 천막들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6일(금) 밤 9시 50분, 명동성당을 찾은 기자의 눈에는 열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계단에 마주앉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다. “우리들이 같이 갖고 있는 고민이니 세네 가들도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네요” 전승원

(경성대 총학생회장)씨가 자리를 정리하며 맞은편에 앉았는 여학생들에게 건넨 말이다. “자주 둘러주세요, 먹을것도 없고...” 누군가가 말하자 여학생들은 까르르 웃는다. 지지부진한 은 대학생들이 떠난 후, 남은 5명은 바람에 쓸쓸하게 식은 몸을 일으켜 친 천막안으로 들어갔다. 전승원, 박공기, 김유미, 김진희, 조화자. 이들 5명은 모두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이다. 이들은 지금 ‘실인미군처벌, 한총련이적규정철폐와 이회창낙선’을 주장하며 6일째 명동성당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을 하고 있다. 37가지를 주장하

고 있지만 지금 이들이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 반창, 즉 ‘이회창낙선’이다. “여제 신관위에서 불법행위라며 철거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회창씨와 한인육씨가 명동성당에 미사를 하러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산천물을 빼앗고 하더라고요” 박공기(경성대 총학생회장)씨의 말에 잠깐 웃어도 보지만 천막안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명동성당 주임신부님도 계속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공권력부임을 요청한다고 말했잖아요. 아마 오늘밤엔 공권력이 투입될지도 모르죠” 전승원씨는 “대체 이세상에 정치적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지 공명하라고 한문을 내놔요. 이들은 이미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까지 났. 그런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회창 반대’ 농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러죠. 그의 아버지 이흥규씨가 조선총독부에 11년동안 근무했던 친일행적을 말하지 않아요. 이회창씨 그 자신 또한 61년 박정희정권에 ‘혁명재판소’의 법관으로 민족의통 조공수 사장의 사생활관계를 내렸습니. 그리고요 어느 인터넷에서 양상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비판하게 나왔잖아요” 김유미(서원대 부총학생회장)의 말이다. “지금 이회창씨가 내세우는 것이 ‘부패정권살상’이시죠? 지난 97년 대선때 국제 정치자금에 빼돌린 삼계비문에 써놓고, 그리고 아들들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아 놓고서

어떻게 그런일이 나오지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TV토론에서 권영길후보가 한나라당을 ‘부패원조당’이라고 말했겠어요” 김진희(경원대 부총학생회장)씨도 할 말이 많았다. “요새 계속 ‘서민행보’를 한다인데, 왜 ‘수돗물’ 발판 파문도 있었잖아요. 6·25 직후에 너무 가난해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고 이회창씨가 말했는데, 알고보니 그때에는 수돗물이 진짜 귀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가 서민이라면 지난번 농민대항 때 왜 참작하지 않았겠어요? 단지 민심을 사기 위해 취하는 정치적 자제일 뿐이죠.”

“요새 개그맨 남희석씨가 ‘생각대로 살자’고 말해서 회개 하겠습니” 전승원씨가 운을 댔다. “여중생 사망사건을 일으킨 주한미군을 처벌하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는 몇달전 ‘지나친 반미감정은 유감이다’고 말했다습니. 미국의 이라크침공에 모두 반대할때도 그는 반테러 전쟁에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후보인지, 미국 대통령후보인지 헷갈리는... 요새 주한 미군에 대한 반미가 높아지자 또 때문에 소파도 개장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런 행동을 보여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어떤 행보를 취할까요?”

어느새 자정이 되었다. 돌아오는 기자에게 인사하며, 그들은 마지마로 “12월 19일 밤에 마음껏 환호하며 명동거리를 내달리고 싶다고 말했다.

양창모 기자
hufshan@hmail.net

전국 신임 총학생회장들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2003년 신임 총학생회장들이 지난 25일(월) 연세대학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및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전국 신임 총학생회장 37명은 지지선언을 통해 △여중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미국에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 등을 요구하며 이어 있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참석한 신임 총학생회장들은 민주노동당 지원 사업과 함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낙선운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임지훈씨는 “이회창을 반대하는 데에만 민주노동당 지지를 제안하는 것이다”며 “지금 신임 총학생회장 당선자 개별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했지만 이후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알려나가는 일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신임 총학생회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군은 “평등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진정으며 용인배움터 신임 총학생회장 허관희(동유럽·노어 97)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을 장악해온 낡은 보수정치체제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당선을 통해 “신임 총학생회장들의 바람대로 널리 살기 어려워지는 우리 민중들에게 ‘별다른 세상’을 안겨주려 노력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며 “우리민족의 두터운 자존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 미국의 오만한 패권주의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외·대·만·평 <3>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2003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선언문 전문>

일하는 사람들을 진정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에

故 삼민선, 신희조 살인미군에 대한 무죄판결이 다시금 온 국민을 분노케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폐해자는 있는 데 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배심원도, 피고인도 모두 미군인 재판, 주한미군에서 형벌하는 살인미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 말입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이기에 너무 자연스런 일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단결의 시대, 미국은 대북책 대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흐름을 커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이라크를 점령하겠다는 선봉하는 등 세계평화를 위

협하는 온갖 전쟁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미국에게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은 한국에 있을 수 없다 말입니까?

11월 13일 살수인 개발반대의 기자회견에 모습을 건 30만 농민대항군이 있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오지도 않았습니. 정몽준 후보는 발발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 못했고, 노무현 후보는 상단 농민들이 던진 개탄배를 받았습니. 신자유주의와 맞서 싸우지 않는 대통령은 농업의 문제, 농

민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농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한 무지비한 공권력 탄압을 보고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노정상 강제근로, 도시서민에 대한 강제철거가 있을 때 모두를 모른 채 고개를 돌렸습니. 이 나라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진정 누구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중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미국에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대통령 노동자·농민·도시서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 우리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지지, 지원할 것입니다.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입니다. 우리는 이회창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적극적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Global Thinking Glorious Future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외교 및 무역활동을 강화하고자 공무원, 무역상사 임직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목적으로 1974년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의 후원으로 설립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외국어교육기관입니다. 그간 본 연수평가원에서 배출한 15,000여명의 교육생들이 본원에서 습득한 다양한 외국어를 활용하여 국가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원에는 공무원, 기업체임직원, 일반인, 대학생 교육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등의 외국어 교육과정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Ⅱ 20주 정규 주 아간과정 Ⅱ

- ▷ 국내에서 해외연수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 공무원, 금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대학생 언어연수프로그램
-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집중교육
- level test를 통해 본인의 실력에 가장 적합한 학급배정

Ⅱ 10주 일반인 대학생과정 Ⅱ

- ▷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한 회화교육 프로그램
- 회화 중심의 실용적인 표현 습득과 다양한 주제토론 수업
- 일본어 및 중국어 외 기타외국어는 문법과 문형이해, 회화를 함께 학습. 한국인과 원어인 교수와 오일일 교차강의

Ⅱ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Ⅱ

FLEX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발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이해영역(청취, 독해)과 표현영역(회화, 작문)으로 구분하여 외국어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FLEX시험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신입 및 임직원에 대한 인사평가자료로 활용하며, 본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일정수준 등급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실용외국어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http://www.fltec.hufs.ac.kr>

2003년 교육일정

▷ 20주 정규과정

학기	과정	교육기간	접수기간	수업시간	비고
상반기	주·아간	2.10 - 6.27	2002.12.9 - 12.27	주간 09:30 - 16:20 아간 18:40 - 21:30	· 주간: 1일 6시간 (600시간) · 아간: 1일 3시간 (300시간)
하반기	주·아간	7.28 - 12.12	2003.6.2 - 6.20	월·금 (주 5일)	

▷ 10주 일반인·대학생과정

학기	과정	교육기간	접수기간	수업시간	비고
상반기	아간	2.10 - 4.18	2003.1.6 - 1.23		
	대간	4.21 - 6.27	2003.3.24 - 4.10		
하반기	아간	7.28 - 10.3	2003.6.24 - 7.16		
	대간	10.6 - 12.12	2003.9.1 - 9.24	대학생 17:40 - 19:30 일반인 19:40 - 21:30 월, 화, 목, 금(주 4일)	· 1일 2시간 (80시간)

